

GRACE 선교소식

2025년 9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열고 있는 교단 국제 총회를 섬기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3박 4일 동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박국 3:2)' 라는 주제 아래, 매 말씀 시간마다 참석하신 모든 총회원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리며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를 위해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 팀 멤버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GMI 교회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며, 저 또한 성도님들을 마음 가득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는 송태근 목사님(삼일교회 담

임), 백동조 목사님(목포 사랑의교회 담임), 유재명 목사님(안산 빛나교회 원로), 주성민 목사님(세계로 금란교회 담임)께서 오셨습니다. 듣는 이마다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목회와 사역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총회장으로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김광신 목사님 다음으로 총회장직을 감당한 뒤, 오랜 시간 함께 교단 사역을 섬기던 목사님들께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들과 달리 행정 회의보다는 모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선교 중심으로 사역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는 복음주의 신앙 노선을 굳건히 지키며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선교 헌신하는 목회사역을 돕는 개혁주의·성경 중심 교단입니다. 모든 은사를 성경적으로 인정하며 성령의 부으심과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여수 은파교회 부흥성회: 9/16-9/18
- 연합 주말 수양회 및 연합 인카운터
3차 주말 수양회: 10/11
4차 주말 수양회: 11/15
- GTD 210기 여자: 11/30-12/3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고 김광신 원로목사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교단을 잘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총회 교회들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국

HOO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로 Logos Church와 Grace Center 공동사용건축이 시작됩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1시간 정도 동쪽에 위치한 두번째 대도시에 위치하며 기존교회 건물에서 찬양과 기도소리로 인하여 강제퇴거 당하게 된 저의 룬툼 동역자 목사님과 사모님의 Logos Church와 Grace Center 공동사용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성전과 은혜센터 건축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늘의 상급과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위에 보이는 교회부지는 큰 길가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지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힌두 국가인 N국은 2025년부터 교회건축시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발표되어 이번 건축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재는 Echo Panel을 사용하면 방음 역할도 된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장소는 예배, 전도훈련, 성도 양육과정 훈련, 청소년 교육과 훈련, 단기선교팀 사용 등 다목적



으로 건축됩니다. 위 오른쪽 사진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으로 2022년 은혜교회 전도복발 단기팀이 방문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9월부터 12월까지 현지에서 건축상황을 확인 보고하며 다른 사역을 병행할 것입니다. 9월 중에 정부의 건축 퍼밋이 나와 착공되고 신속 안전하게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영육간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올해 8월은 제 인생의 가장 기쁜 한 달 중에 하나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탄자니아의 겨울인 8월은 한국의 초가를 날씨같은 시원한 계절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8월에 킬레오는 두번의 잔치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골약교회 의료사역팀과 미국에서 온 VBS팀으로 아픈 환자나 어려운 가정을 돌아 볼 수 있었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킬리만자로 산자락의 가난한 동네 킬레오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곳을 개척한지 7년이 지난 지금, 과거 이 땅을 사기전에는 무당들로 인해 저주받은 땅

이었고 온갖 독충으로 소, 양, 염소조차도 들어오기를 꺼려했던 음침하고 눅눅한 습지같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도 아름답게 여기는 녹초지의 아름다운 땅으로 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는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땅이 되었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2017년 어느 친구 선교사가 이 땅을 샀다고 해서 인사차 방문하여 보고는 속으로 “이병철 선교사가 미쳤나, 이런 땅을 왜 샀지?” 하며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와서 보곤 “이선교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지난 시간 자기가 가졌던 의문을 축복으로 돌려주는 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온갖 독초와 가시나무로 덮였던 곳을 밀림칼로 온 몸을 사용하면서 제거하여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 길을 닦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누구나 방문하여 심을 가



질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도 건축하여, 차를 가지고 운전하며 지나가는 모든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쉬어가도록 섬김의 장소를 만들며 이 땅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중 한국과 미국 두 팀을 통해 8월은 천국잔치를 지내었습니다.

오는 9월은 제 나이 60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축복의 달입니다.

지난 60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국

정OO / 정OO 선교사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우기철입니다. 특별히 올해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도로 곳곳이 파이고 침수 피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1국 콜카타에서도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1국 역시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한 날이 한국과 동일한 8월 15일입

니다. 저희 콜카타 한인회에서도 광복절 80주년 행사를 하고 저희 사역지에서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 날물고시 목사님의 부인이 그동안 변호사 시험에 4번이나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정부 공무원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어서 지금 발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른 “믿음의 발자취 소식”은 저희가 운영하는 에어컨 기술센터에서 일하는 에어컨 기사들에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또한 전도지 책자



를 가지고 공부하고 난 뒤에 전도지를 가지고 직접 전도실습을 하면서 귀한 사역에 은혜를 잘 감당했습니다.

필리핀

성은식 / 김해경 선교사

티바간교회 건축

6월, 7월은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우기철이라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 성전을 새로 건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바꾸고 외부 지붕공사를 제일 먼저 하고 벽과 내부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GTD 1기

필리핀GTD 1기를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을을 감사드립니다.

12월 단기선교 준비

12월 17일부터 라오스,태국 단기 선교 재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아 놓은 물건들을 팔고 옷을 만들어 팔고 지속적인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회 앞에 새롭게 카페를 꾸미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커피 머신과 이이스크림 머신을 준비했는데,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전기를 새롭게 끌어오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교회 주방과 카페가 들어설 자리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임시로 수리하여 사용하려는 공간입니다. 자립의 기회의 카페로 꾸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김동규 / 이승향 선교사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우리 마음 속에 주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캄보디아는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자유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학생



들은 처음으로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제야 선교사님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ㄹㅇ국 BX 지역에 캄보디아 팀이 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데에는 반드시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문, 부흥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남아 12국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ㄹㅇ국을 통해 우리의 첫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이제 12국 모든 땅을 밟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중동 아랍권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학생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이 일을 꿈꾸었으나,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으며, 엘리야의 기도로 불가능한



비를 내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역과 우리가 만난 ㄹㅇ국 현지인들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국

김OO / 김OO 선교사

말씀학교 '은혜와 자유'

청년을 대상으로 '은혜와 자유' 말씀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 지역마다 강제징집이 실시되고 있고 언제 강제징집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주는 담대함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올바른 자화상 갖기 등 강의를 통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나누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내용을 통해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뜨리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원인임을 직시하도록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면을 살피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들을 직시하며 문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리스트를 만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삶속에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아원 성경 암송대회

주일학교 공과시간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 든

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신명기 11:18-19)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암송이 아이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적 자산이 될 것이기에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성경암송대회를 열어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와 더불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부터 청년까지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암송과 주일학교시간에 공부한 성경 내용으로 성경시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아이들. 암송한 말씀이 잘 떠올리지 않아 머리를 굴적이는 아이. 암송하다 막혀 몇 번이고 반복하여 완수한 아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고아원 아이들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영적 열매를 맺어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베네수엘라 신학교 사역 (CEFOPAL)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올해 3번째 신학교모임을 갖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재화와 공산화로 외교적으로 더 고립되어서, 외부 사람들이 더욱 들어오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외부 강사님을 모실 수 없어서 신학교 졸업생인 현지인 강사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교사가 교회 사역 플랜팅과 리더쉽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종료 후 박수를 받을 만큼 목사님들과 교회에 필요한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쉽게도 이곳 라틴은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사역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강의가 모든 목사님들께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

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이신 사무엘 목사님이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오셔서 하루를 꼬박 당신의 삶과 사역을 진솔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60년 넘게 사역하시며 모든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모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분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델이었고, 사역의 진솔한 고백과 나눔을 통해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사역의 진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의 저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님이 못 오셨지만 여전히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신학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5기 6기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월에는 5기 목사님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홍석구 장로님께서 오셔서 아가서를 강의해주실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11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

AFA VENEZUELA

신학교가 끝나자마자,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11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시작한 베네수엘라 목회자 사랑의 불꽃을 되돌아볼 때 이 사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 주신 우리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뿌린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라고 열매로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국간의 갈등으로 인해 처음으로 한국 섬김이들이 못 오셨지만 계속해서 중보기도로 섬겨 주시고, 렉터인 안영숙 전도사님께서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많은 기도응답을 받는 은혜 풍성한 사랑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80명의 담임 목회자와 86명의 팀멤버들이 모여 놀랍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 컸습니다. 저 또한 스피리치 리더로 섬기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이들도 함께 변화 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목격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80명의 담임 목사님들은 내년 1월에 7기 신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복음 컨퍼넌스와 성경적 창조론 세미나

지난 6월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3곳의 도시(시우닷 볼리발, 마라카이, 발렌시아)를 일주일씩 방문하며 복음 컨퍼넌스와 성경적 창조론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은 말씀없는 복음과 기복신앙적 복음으로

인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채 스스로 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일간 하는 복음 컨퍼넌스를 통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말씀으로 배우면, 회개를 하고 삶이 바뀝니다. 또 성경적 창조론을 통해 창조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왜 구원주 하나님이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저번주에는 아마존에서 복음 컨퍼넌스를 하였으며, 다음주 8월 마지막주에는 카라카스에서 5일간 250여명을 대상으로 복음 컨퍼넌스를 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콜롬비아 선교센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콜롬비아 현지 동역자인 아랑헬 형제 부부가 책임을 다해 열심히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집을 기증한 아랑헬 형제는 개인적으로도 차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여 건축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교회들도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몇몇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강의실과 식당이 건축이 완성되었고, 현재 50여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숙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콜롬비아선교센터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목회자 신학교를 세울 예정이고, 라틴현지인들이 선교사들로 훈련하는 선교사 훈련원,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센터로도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올해 10월 10일 콜롬비아 신학교 1기 입학식이 있습니다. 55명 입학생이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학식을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증문 필리핀 GTD

최훈 안수 집사 / 안산 빛나교회

이번 필리핀 GTD 1기 setup team으로 섬긴 안산빛나교회 새로남TD 29기 미다반 최훈 안수집사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마무리 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지 않게 금요철야예배 말씀을 전하신 은혜한교회 선교담당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듣고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 사역함에 하나님이 함께 함이 직접 보여지고 느껴짐이 은혜였고 말씀 듣는 내내 와우~!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시간을 뒤로 바로 은혜한교회와 TD를 필리핀에서 함께 진행한다는 소리에 그들의 사역도 궁금했고 나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는 감격을 체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찰라 선교국장인 권순성 장로님이 TD했냐고 했으면 함께 하자 소리에 거의 20년 전에 TD를 참여하긴 했는데 해도 될까요 묻자 상관없지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 참여하겠다는 나도 모르게 대답하였습니다.

헌데 내가 지금 상황에 갈 수 있나 날짜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일은 어떻게 하지? 힘든 시기



를 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갈 수 있나? 그런 생각 중에 날짜도 내가 회사를 비워도 되는 기간과 딱 맞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라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출발하기 3~4일 전 갑자기 요로결석이 걸려 갈 수 있겠나? 요로 결석도 문제인데 이걸로 고질병인 허리가 아프면 진짜 민폐에 진짜 누워만 있다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는 찰라에 한분이 “허리 수술로 못 갈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이 올라오자 나도 모르게 바로 기도 부탁을 하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안 좋은 허리가 제일 문제가 되어 1~2일 못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 당일 또 통증이 찾아오고 몇몇 분은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였지만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거야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출발 당일이 주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도해주셔서 돌아올 때는 낱을거다 확신도 있어서 더욱 걱정이 사라져 가는 중 필리핀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통증으로 비몽사몽 숙소에 어떻게 갔는지~ 그렇게 도착하여 2~3시간 잠시 휴식시간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증은 없었고 다녀와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 괜찮은 것 같다고 낯은 것 같다고 하는 소리에 진짜 은혜였습니다.

사역 내내 선교일정이라 더욱 그리하였지만 미소와 감사가 끊이지 않았고 힘들다고 하는 파트의 일을 맡았지만 하나도 힘들거나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괜찮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치는 시간에 선교사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보며 진짜 TD란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함이 그 사람들이 변화하여 그 나라 특히 영어권인 필리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큰 쓰임 받았구나 감사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해서 국내든 해외는 이런 프로그램(TD)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현지 사람들이 전하면 더욱 효과적 이겠구나 하는 걸 더욱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교회의 연합 사역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가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과정과 마무리까지도 함께하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속한 것 만으로도 은혜임을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

<1분단상 144-9월호>

- 김대규 장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날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날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선지자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 시기에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다. 이 경고는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스가랴가 말한 ‘하나님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유다에 임한 역사적인 심판과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다.

먼저 유다에 임한 ‘제한적 심판’은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이 이방문화에 젖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의 결과였다. 겉으로는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했고 지도자들은 탐욕과 불순종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를 심판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유다를 멸하신 것이 아니다. 매서운 징계와 사랑의 긍휼로 유다를 깨우려고 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듯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내 기준으로 믿으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자만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외형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 아닌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

리의 ‘마지막 날’은 기쁨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 죄와 세속적인 삶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은 누구에게나 임할 ‘심판의 날’이다.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스바냐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 부름을 외면하고 제 길로 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들은 세 부류다.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쫓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우상만 섬기며 사는 자들로 이방의 문화, 마음의 우상, 육신의 우상, 거짓 신들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다. 셋째는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며 세속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리화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아래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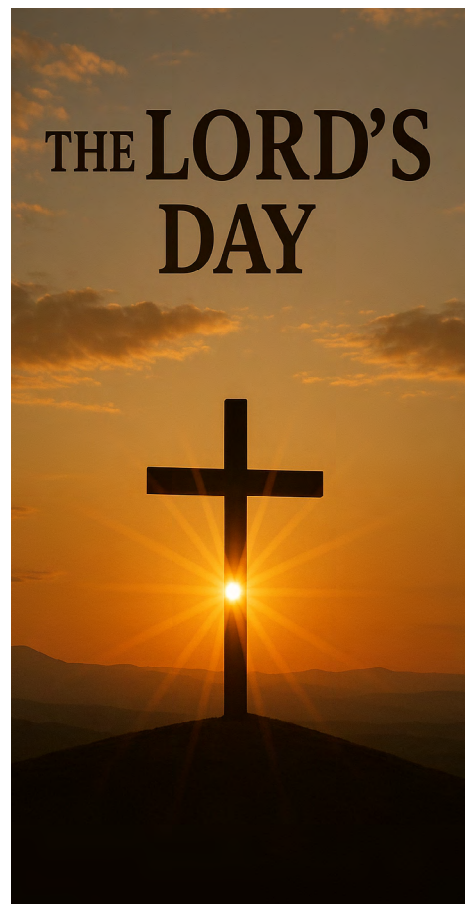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다. 진실로 하나님께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온전한 자는 없다. 죄와 허물과 잘못이 아무리 크다해도 하나님께 진실로 돌이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숨겨진 자, 남은 자, 정결한 자로 삼아 끝 날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는 이리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기쁨인 것이다.

스바냐는 이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로서 매일을 준비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실 것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2.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3. 보건소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4. 킬레오 땅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을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 저와 아내가 선교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1. 모든 졸업생들이 캄보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 2025-2026년 학기에 많은 신입생들이 모집되게 하옵소서
3. 세워진 새소망교회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4. 말씀 암송운동이 전국에 확산되어 말씀으로 세워지는 캄보디아가 되게 하옵소서
5. 태국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여만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6. 저희 가정(김영대, 조정아, 성훈, 성빈)에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M국 김OO / 김OO 선교사

1. 현재 상황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부터 중국과 태국 국경으로 수입 물품이 차단되어 앞으로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12월과 내년 2월 사이에 선거가 예정대로 이루어져서 현재의 비상체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 MNG EDU 센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Dream Seed 학기 수업이 은혜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다음세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예비하신 교사를 만나도록
 - 스쿨버스 구입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필요재정의 70%가 채워졌습니다.
3. 청년 자립 공동체 「복음자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청년 자립공동체의 '응애' 청년이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여 내년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것들이 잘 준비 될 수 있도록
 - 청년 자립공동체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 청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 자립을 위한 적정기술 교육(Micro Learnable)과정이 원활하게 준비 되도록
4. 개척마을 교회가 본격적으로 주변 마을에 순회하며 전도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I국 김OO 선교사

I국 남쪽 나시리이아 우르(아브라함 고향) 지역에서 무슬림에서 개종하여 목사가 된 형제와 2명의 리더들이 비밀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와도 사역과 비자 관계로 연결된 분들인데, 체포 과정에서 전화기와 노트북이 압수되어 정보들이 노출되었고, 앞으로의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2명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개종한 목사 1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체 기독교 공동체가 큰 박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교회들의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되게 하소서 (행12:5)
2.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하소서 (살후3:8)
3. 이번 박해가 오히려 이 땅의 교회의 부흥으로 역사하게 하소서 (행12:24)
4.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신분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소서 (행4:29)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필리핀 성은식 / 김해경 선교사

1. 예배의 처소로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필리핀 GTD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랑의 불꽃이 담장을 넘어가게 하소서!
3. 주방과 카페 공간이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재정도 부어주셔서 자립의 기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4.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어 충성된 일꾼들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5. 성은식, 김해경 선교사의 영육의 강건함과 자녀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미국 정OO / 정OO 선교사

1. 닐몰고시 목사님의 부인인 가꾸리 고시 변호사 발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에어컨 기술 센터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에어컨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우기철인 가운데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가 반복되어서 저희 사역자들이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저희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과 저희 선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콜롬비아 목회자 AFA 5기 (10/4-10/11)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T/M: 9/18, 9/25, 10/2
- 인도개척선교(인도 신학생들과 함께) (10/24-11/1)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 은혜동산(통일민 TD) 17기 (10/24-11/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해규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태국 TD2기 (10/31-11/8)

S/L: 송중호 목사
렉터: 정명섭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경 집사 (714-337-3091)
O/T: 10/1(수) 7pm, 새가족반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